돈가 전망과 돈가 회복방안

모든 양돈인과 축산인들의 관심사인 돈가가 5월부터 출하두수가 감소하면서 박피기준 3,857원/kg(3월 3,061원/kg, 26%상승)이던 가격이 6월 3주차 들어서면서 상승기류로 전환되어 4주차에는 5천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 나타나는 이상기온 현상에 따른 이른 더위로 돼지들의 성장이 지연되면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최근 출하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달까지만 하더라도 일 평균 61천두(4월 62천두/일) 출하되던 돼지두수가 6월 3주차 들어서면서 점차 감소하여 55천 두에서 50천 두 수준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저 등급 돼지(짬밥돼지) 경매가격 제외와 경매시장 출하두수 감소(일 1,400~500두에서 일 1,200두에서 1,300두)) 및 암퇘지 상장 비율 증가로 나타나는 매우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된다

향후 돈가를 예상할 수 있는 모돈사료 생산량을 보면 4월 9만 톤을 넘어섰고 3월대비 4.5%나 증가하였다. 그리고 양돈사료 전체도 51만 톤으로 3.4% 증가하여 단기간 출하 물량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수입량이 월 2만 이상에서 5월 15천 톤까지 감소했고 세계돈육 시장을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에 돈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은 돈가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세계적인 경기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출구전략의 수정(긴축제정으로 전환)등으로 인한 시장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 및 환율 불안 등은 악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돈가 회복을 위해 정부와 한돈 협회가 추진하는 모돈 감축은 효과를 발휘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모돈 도태 실적을 보면 '10년 월 평균 약 40,500두에서 '12년 약 51,800두 도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올 초부터 증가하던 모돈 도태 두수가 3월에는 55,600두로 '12년 월평균대비 7.3%가 증가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10개월 뒤인 2013년 말부터는 출하두수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3월 이후 모돈 도태두수를 살펴보면 4월 44,125두, 5월 44,125두 6월 5만두 전후 예상(6월3주차 누계 38,322두)되어 모돈 사료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에서 모돈 감축에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돈 감소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FTA로 인한 수입육의 시장 잠식을 감안 할 때 국내 적정 도축두수를 약 13만두로 추정하고 최근 모돈 생산성 향상으로 MSY를 20두(현재 17.5두로 추정됨)로 가정 할 경우 적정 모돈두수는 약 650천 두로 추정 해 볼 수 있다.
현재 모돈두수를 960천두(13년 6월 추정)로 본다면 미래 향후 2~3년 내에 지금보다는 30%가 감소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당장 하자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모돈을 다 같이 줄이면 돈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본인만 모돈을 줄이지 않고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모돈 감축에 동참하길 당부 드린다.

중장기적으로 모돈을 감소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만이 우리 양돈인이 살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돈을 감축하여 효율적으로 돼지고기를 생산해야 한다.

향후 우리 양돈이 살아갈 길은 세계적인 경쟁상황에서 생산비를 낮춰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측면으로

첫째, 저 능력 모돈의 과감한 도태이다. 이는 여러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물론 MSY가 생산성의 지표로 전부는 아니지만 유럽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 능력 모돈의 도태가 필수다. 이번 기회에 저 능력 모돈을 도태하여 월 교배두수를 감소시켜야 한다.

둘째, 생시 미숙자돈과 이유시 저 능력 미숙돈을 과감히 도태하여야 한다. 이는 생산비의 매몰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고, 농장의 질병 발생을 차단 및 감소시켜 생산비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육돈사의 환경을 개선하여 비육돈의 출하 품질을 높여주고 사료효율도 개선해 준다.

셋째, 비육돈사에 맞는 모돈 두수의 재구성 혹은 모돈에 맞는 자돈사, 비육사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돈사 구조를 살펴보면 모돈 생산성('10년 MSY 15.5두 추정)에 맞춰 돈사의 구조가 이루어져있었는데 모돈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비육돈사가 협소하여 밀사에 따른 돈군내 층아리 발생과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료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고돈가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지만 이제는 높은 돈가가 지속되기란 어려운 상황이므로 돈군 흐름을 고려한 돈사의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는 돈사를 확대하거나 신축하기가 폐수문제와 지역민원문제로 쉽지 않기 때문에 자돈, 비육돈사에 맞는 그리고 모돈의 생산에 맞는 적정 모돈규모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 직할 것이다.

다음은 중장기 적인 측면으로
첫째, 소비자에 대한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활동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나라 도축, 가공시설의 개선이다. 도축장에서 1차 가공시설까지 현대화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하여 소비자가 신뢰 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이를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가끔씩 방영되는 불만제로 등에서 잘못된 혐오시설이나 불결한 내용이 방영될 경우 지금으로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여파를 걷잡을 수가 없다.
하나의 예로 우리나라에 두 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칠레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요리사)들을 초빙하여 자국의 도축시설과 가공시설들을 견학하게 하고 생산현장을 방문하게 하여 자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얼마나 안전하고 맛있는지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 요리 학원이나 문화센타등에서 하는 요리아카데미 등에 한돈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돼지고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무엇보다 소비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 그 동안 저지방부위 홍보를 많이 하였지만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핵심은 소비자들에게 요리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고 요리를 개발하여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 혹은 프랜차이즈화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소분할 부위에 대한 규정도 변경되어야 한다. 현재 수입되고 있는 부위를 보면 미국의 경우 앞다리와 목살을 함께 목전지로 수입되는 량이 삼겹살 다음으로 많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부위별 가격을 상승시키고 부위별 소비 밸런스를 깨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등심과 삼겹살의 경우도 등삼겹이라는 신규부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소비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해서 등심과 삼겹을 함께 판매하여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고단백부위 판매 확대와 최근 일고 있는 웰빙트랜드에 맞는 소비를 촉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아직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물의 가치를 활용한 부산물 시장의 활성화다. 가장 취약한 부산물의 처리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현대화 시설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정육코너와 정육점에서 육가공 제품의 소분 판매를 조기에 정착하도록 해야 한다.
향후 소비 변화는 핵가족화와 일인가구 증가 및 서구화된 음식 패턴으로 육가공 제품의 증가는 필수적일 것이다. 이를 반영한 육가공 제품의 정육점과 정육코너 소분 판매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가공품의 소비확대와 함께 새로운 개념의 정육점들이 탄생하여 우리 양돈사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결국 세계 경쟁 속에서 우리양돈 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생산원가 중심의 산업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기록관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경영관리를 해야만 한다. 또한 우리양돈인들 이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식품회사의 사장으로서 내 가족이 먹는 돼지고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를 생산하여 한다.
모든 양돈이 하나되어 저 돈가 상황을 잘 극복하는 기회가 되길 소원해 봅니다.